



무서운 성병을 알자 <제 5 회>

매독은 과연 콜럼버스가 가져다준 선물인가

곽 대 희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성병은 비단 의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학적으로도 골치아픈 難題로 군림해왔다. 우리나라도 開港 이후 성병이 서서히 증가하더니 한미수교 백주년 되는 근래에 와선 성병인구가 급증하여 새로운 사회적 불안요

소로 클로즈 얹되고 있다.

우리나라 문헌상 최초의 성병에 관한 기록은 中宗 27년(1532) 王朝實錄 3월 11일자 日誌이고 또한 李暉光의 「芝峰類說」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매독이 처음 나타난 것은 中宗 1년~ 16년(1506 ~ 1521)

사이로 그 이전에는 그런 병이 우리나라라는 물론이고 중국에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에 앞서 인도, 중국을 거쳐 수입됐다는 결론이 된다. 淫疾에 관한 우리의 인식이 이처럼 16세기초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性病이란 말이 西歐社會에 처음 도입된 것은 1527년 Jacques de Bethercourt에 의해서였으니 우리는 오랫동안 성병을 모르고 살아온 셈이다. 그러나 답답하게도 18세기말에서 19세기초에 이르는 근세에 이르도록 임질과 매독은 한가지 병이거나 같은 종류의 질환으로 취급, 그저 막연히 성병이라고만 불려왔다.

오늘날 성병학자들의 관심의 표적이 되고있는 매독의 역사는 1495년 유럽의 대유형에서 비롯되고 이것은 공교롭게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온지 3년째 되는 해이다. 이같은 예전에 미처 보지 못하던 매독의 창궐이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콜럼버스 일행이 미지의 세계로부터 들여온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사회적 인식으로 말미암아 매독 美洲起原說을 주장하는 Columbian 학파가 등장,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수한 질병들은 원래 같은 병이나 다만 사회적 조건과 개인의 습성 그리고 환경여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믿는 Unitarian 학파와 대립했다. 전자는 유럽, 어느 지역

에서도 매독의 분명한 증거가 될만한 병리학적 소견이 콜럼버스 以前時代 유골에서 발견되지 않음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그것은 관찰과 연구부족에서 기인된 성급한 판단으로 낙착되었다. 즉 콜럼버스 이전 지중해 동부의 초기문화권에서 매독증세가 완전한 유골이 발견되었고 5천년전 사망한 중국인과 일본인의 유해에서도 매독의 병증을 확인하므로써 매독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다녀오기 훨씬 이전에 이미 유럽 및 아시아에 존재했음을 입증한 것이다.

오늘날 트레포네마 학자들은 이미 존재하는 트레포네마 질환은 개인위생과 영향상태가 나쁜 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테면 남아프리카의 witkop 오스트렐리아의 boomerang leg 스칸디나비아의 radesgye 무덤고습기찬 지역에 잘 생기는 yaws 남미의 pinta, 건조한 사막지대에서 보는 bejel 등은 모두 성교없이 사회적 접촉만으로 일어난다. 유프라테스강 유역에도 성교없이 전파되는 트레포네마 질환이 있다. 이런 병들은 열대와 아열대에서 비성교성으로 전염하고 학술적으로도 분명히 성병이 아니지만 이것이 온대 또는 한대지방으로 북상하면 모습을 바꿔 성병이 된다는 학설이 있는데 그 대표가 Hudson이다. 그는 수만년전에 트레포네마 질환이 적도

아프리카와 서인도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 그 병은 결국 장소, 인종, 기후조건의 영향을 받아 그 병세를 달리 하면서 다양화, 번져가게 되었다는 것이 Unitarian 학파의 주장이다. 좀더 알기쉽게 말하면 열대지방의 풍토병인 Yaws의 병원체가 달라진 기후와 인종에 적응-매독이 되었다는 이론이다. 유럽에 매독이 크게 유행했던 것은 아프리카인처럼 유럽인에겐 그 병에 대한 천부의 면역이 없었던 탓이라고 말한다. 즉 러시아인에겐 많은 발진티프스의 면역이, 프랑스인에겐 없어 모스크바 공략에 나포레온이 패퇴했음과 이론적으로 같다.

매독의 효시야 어떻든 그 전파에는 교통수단의 발달과 인구의 밀집에 관계가 깊은 것이 사실이다.

1495년에 발발한 나폴리 전쟁은 매독의 유럽전파에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프랑스의 젊은 왕, 샬르르 8세는 합스부르크家の 영지, 나폴리를 침공했다. 같은 王家인 스페인 필립왕의 개입과 더불어 각지에서 물려온 유럽의 용병들이 이 싸움에 참전했으며 그들의 진퇴에 따라 가련한 나폴리 여성들은 거치고 역센 이방인 병사들의 품에 번갈아 안겼으며 이를 계기로 성병균은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간 병사들의 몸에 숨어서 유럽 전역으로 놀랍게 번져갔다.

이것이 유명한 1495년의 大疫疾의 전모이다. 일이 이렇게 되자 유럽 각국은 서로 이웃나라를 비난했다. 프랑스인들은 이 병을 나폴리 여성으로부터 얻었으므로 이 딸리아 병이라고 불렀으며 영국인과 독일 사람들은 프랑스인들이 가져왔다고 해서 프랑스피질이라 욕설했다. 이같은 병은 마스코다가마와 포르트갈 선원들을 통해 1498년에는 인도, 1505년에 중국의 廣東에서 발생한 것으로 문헌에 기록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신의주, 평양의 코스를 따라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성병의 창궐은 전쟁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임진왜란중 포르트갈과 교류가 많았던 일본인들을 의심하는 학자들이 많다.

어찌되었건 매독이 항해술이 발달한 15, 6세기경에 여행자들의 행적과 전쟁으로 번창하게 된 것은 확실하며 따라서 콜럼버스는 烏飛梨落의 화를 입은 셈이다.

〈필자=곽대희 비뇨기과의원장·의박〉

